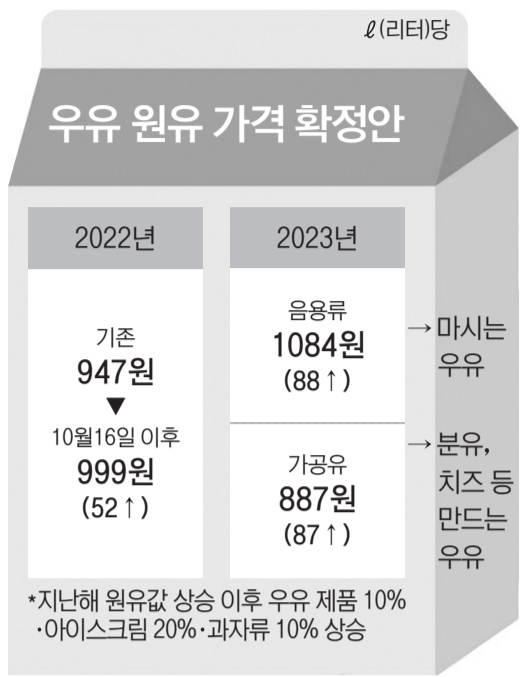


원유 가격 1ℓ 당 88원 인상...흰 우유 1ℓ '3000원' 시대



10월부터 신선 유제품 원유 1ℓ 당 1084원·가공 유제품 원유 887원 확정
아이스크림·과자 등 가격 인상 불가피...정부 "과도한 인상 자제 부탁"

원유값이 오는 10월부터 1ℓ 당 88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1ℓ 들이 우유 한 통 가격은 3000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 폭인데, 유제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는 '밀크플레이션'이 점쳐짐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는 지난 27일 열린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 11차 회의에서 흰 우유 등 신선 유제품의 원료인 '음용유용 원유'는 1ℓ 당 가격이 88원 오른 1084원, 치즈 등 가공 유제품의 재료인 '가공유용 원유'는 87원 오른 887원으로 인상을

확정했다.
원유값 인상은 사료 비용 등 낙농가의 생산비 상승에 따라 예견돼 있었다.
다만 낙농가와 유업계는 수입산 유제품과의 가격 경쟁을 위해 가공유용 원유 가격은 협상 최저 수준으로 결정했다.
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유값 인상을 오는 10월 1일로 당초 예정됐던 8월 1일에서 두 달 늦추기로 했다.
올해 원유 기본가격을 음용유 기준 1ℓ 당 88원 인상하기로 하면서 유제품 가격은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식품 물가 부담을 우려해 업계에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원유값 상승으로 제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인상 폭은 지난 2013년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작년의 경우 원유값이 1ℓ 당 49원 오르자 유업체들은 흰 우유 제품가를 10% 정도 올렸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의 흰 우유 1ℓ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 2800원대로 올랐고, 매일유업의 900㎖짜리 흰 우유 제품 가격은 2610원에서 2860원으로 인상됐다.
작년에는 1ℓ 또는 900㎖짜리 흰 우유 제품가가 3000원 아래였으나, 올해는 원유값 인상에 따라 3000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또 원유값 상승에 따라 밀크플레이션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작년의 경우 원유값 상승 이후 일부 아이스크림 가격은 20% 올랐고, 과자류 가격은 10%대 상승했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카페라떼 등 우유가 들어가는 메뉴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원유값 인상이 결정되고 난 후 지난 28일 유업계에 물가 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유업계와 만나 "원유 가격 인상이 과도한 흰우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유업계는 각 업체가 구매해야 하는 음용유 물량을 축소할 수 있게 하고, 가공유를 지금과 같이 1ℓ 당 6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학교 우유 급식 공급 단가 현실화도 건의했다.
현재 200㎖짜리 흰우유는 대형마트에서 900원, 편의점에서는 1100원에 판매되지만, 학교 급식에서는 480원이 적용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평동농협, 돌발병해충 적기 방제 소형농기계 지원



등짐형 분무기 370대·예방교육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평동농협에서 지난 28일 이상기후에 따른 돌발병해충의 예방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형농기계 전달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 날 지원된 소형농기계 '등짐형 중전식 분무

기'는 배터리를 사용해 약제의 고압분사가 가능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무게가 가벼워 고령·여성농업인도 편리하게 방제를 할 수 있는 기종이다. 평동농협은 지역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370대 지원했다.
또 안전한 농작업을 위한 조작법 및 사고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이번에 지원된 소형농기계는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와 평동농협이 협력해 총 구입금액(7400만원) 중 75%를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였다.
최삼규 조합장은 "앞으로도 농촌 현실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영농편의를 제공하며 농업인을 위한 농협의 가치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함평군 원예산업 발전·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관련 강의를 듣고 있다. <농협 함평군지부 제공>

농협 함평군지부, 원예산업 발전 방안 모색

수출 무역 기본 방향 교육도

함평지역 농업인들이 원예산업 발전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회의를 열었다.
농협 함평군지부는 지난 28일 함평군지부 2층 회의실에서 지역농협 경제담당 상무와 함평군 농업정책실 관계자 등과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 함평군지부는 함평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최명강 농협 전남본부 단장은 이날 강단에 서서

'농산물 유통 정책의 변화' '생산유통조직의 이해' 등을 강연했다.
황도경 NH농협무역 차장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역 기본 방향을 주제로 교육했다.
이광재 농협 함평군지부장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가적으로 수출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출의 기본 교육을 통해 내수시장을 넘어 수출에도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수산물 소비 위축 막아라" 전통시장 할인 행사

해수부·중기부 연말까지 시행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행사를 상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이뤄지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을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노량진수산물시장, 가락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 내 소매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수산물 도매시장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양 부처는 전통시장법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다만, 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산물 소매업이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또 해당 수산물 도매시장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이후에는 가맹점 등록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전집

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적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